

KOREAN  
WRITERS



LEE  
CHEOLSUNG

## CONTENTS

작가 프로필 01

작품 소개 03

대표작 발췌: 시 23

대표작 발췌: 산문 35



## 작가 프로필

이철성 李哲星

namunun@hanmail.net

www.visualtheater.kr (CCOT) / www.ccotbbat.com (CCOTBBAT)

이철성은 시와 미술과 공연을 결합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다. 1969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1996년)하며 프랑스시를 공부했다. 그와 동시에 '공연예술아카데미'(1996년 졸업)에서 연극연출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2003년 졸업)에서 시각예술과 연극이 결합된 Visual Theater의 연출과 퍼포머 과정을 공부했다.

시인으로서 1996년 잡지 '문학과사회' 봄호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고, 이후 문학과지성사에서 두 권의 시집 '식탁 위의 얼굴들'(1998년)과 '비파소년이 사라진 거리'(2009년)를 출간했다.

연출가와 공연자로서 이철성은 현재 극단 '비주얼씨어터 꽃'(CCOT)과 '체험예술공간 꽃밭'(CCOTBBAT)의 대표로서 시와 설치와 공연이 결합된 실험적인 '시 퍼포먼스', '페인팅 퍼포먼스', '설치 퍼포먼스', '미디어 퍼포먼스'들을 발표해왔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중동, 유럽의 여러 실험예술축제와 거리극축제, 극장에 공식초청되어 작품활동을 해왔고,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연기상', 2회 연속 '최고인기상', 세계인형극총회

‘탁월한시각연출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오지여행가’로서 30개국 이상의 오지를 여행하며 시와 산문을 써왔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딸의 아버지이다.

**대표 저서** : 시집 〈식탁 위의 얼굴들〉(문학과지성사), 시집 〈비파소년이 사라진 거리〉(문학과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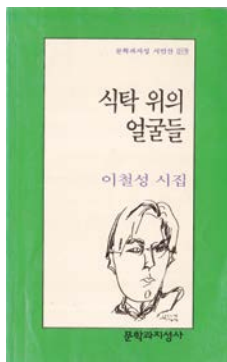
**대표 공연작품** :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페인팅 퍼포먼스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설치 퍼포먼스 〈종이인간〉, 조각그림자극 〈그림자로부터〉, 미디어 퍼포먼스 〈종이창문〉, 미디어상상놀이극 〈거인의 책상〉

## 작품소개

## 시집 &lt;식탁 위의 얼굴들&gt;

(문학과지성사, 1998년)

<식탁 위의 얼굴들>은 존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것의 최초의 양태를 묻는 시인의 첫 시집이다. 사물들은 땅속에 묻혀 있다 금방 발굴된 유물들처럼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우리들 눈에 들어온다. 최초의 존재를 가리키는 언어는 의미의 때를 묻히지 않은 신선한 언어로 우리들의 시각을 돋운다. 그리고 분열되는 자아의 다채로운 면면이 그림자처럼 이 모든 것들의 뒤를 따른다. 이 시집은 사물들 혹은 자아의 본모습을 깊이 탐구하는 극적인 구조의 서정 시집으로, 그 독창성과 실험성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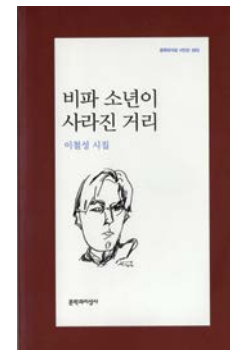


## 시집 &lt;비파소년이 사라진 거리&gt;

(문학과지성사, 2009년)

‘지친 시를 일으켜 세워 향기로운 시로 고쳐내는 치유의 여행’

총 77편의 시가 실린 이 시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2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행시이다. 이철성 시인 특유의 자연스럽고 쉬운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이 시편들은 인도, 티베트,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르단, 그리스 등의 여행지 모습을 독자의 눈앞에 펼쳐놓는다. 이번 시집의 해설을 쓴 성기완 시인은 이 여행시들을 읽는 방법으로 “여행 사진을 들여다보듯 찬찬히 들여다보시라”고 권한다. “풍경의 물결이 아스라이 치고 나면 그 안에 ‘시인’이 있다”는 것. 표면으로 드러난 풍경의 안으로 더, 더 들어가보는 것이, 이 겹구조의 여행시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어서 3부는 연애시, 4,5부는 일상에 관한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편수로 보면 여행시보다 나머지 시가 조금 더 많다.



여행지의 이미지는 일상 속에서 반복된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의 나와 그 냥 나 사이의 관계처럼 같고도 다르다. 이중 자아, 분신, 거울, 호수, 비취보다—반복과 반영의 이런 테마와 이미지와 동사들, 이것은 이철성 시를 짓는 중심 요소들이다.


—성기완, 해설 「숨 쉬는 거대한 시간」에서

시인은 ‘지친’ 시를 일으켜 세워 ‘향기로운’ 시로 고쳐내는 ‘치유’의 과정을 여행을 통해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철성의 시를, 성기완 시인은 “자유롭고 외로운 영혼, 방랑의 테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바이런이나 키츠, 네르발의 주변에” 놓을 수 있는 낭만주의 시가 아닐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



## 공연작품

### 시(詩) 퍼포먼스 <늑대의 옷>

제작\_비주얼씨어터 꽃(CCOT)  / 시, 창작, 연출, 출연\_이철성 / 음악, 연주\_이정훈

#### 작품소개

‘굴다리, 재래시장, 일상의 거리를 예술의 향기로 가득채운 시 퍼포먼스의 힘!’  
 ‘눈으로 즐기고 온 몸으로 맛보는 다섯 편의 詩(visual poems)’  
 ‘새로운 공연미학의 제시! - 시+시각예술(설치, 페인팅)+공연예술(몸, 오브제, 라이브음악)’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시의 깊은 울림과 풍요로운 감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온 몸으로 맛볼 수 있을까.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은 낭송되는 시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뜨겁게 온 몸으로 체험하는 시이다. 이를 위해 예술재료로서의 신체와 육성, 일상의 공간과 사물, 라이브음악이 시와 만나 시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시인이며 창작자인 이철성의 시집 <비파 소년이 사라진 거리>(문학과지성사)의 시들이 퍼포먼스를 통해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 대표공연경력

- 2013 신당창작아케이드 초청공연(서울중앙시장 공연)
- 2010 서교예술실험센터 선정작(홍대지역 야외주차장 공연)
- 2009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작  
(공공광장, 재래시장 공연)
- 한국실험예술제, 노원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초청공연
- 2008 김수영 시인 40주기 추모 기념식 및 공연(민음사 주최)





##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제작\_비주얼씨어터 꽃(CCOT) / 창작, 연출, 출연\_이철성 / 음악, 연주\_이정훈,  
박종근 / 조연출\_한윤미

### 작품소개

‘회화, 영상, 시, 라이브음악, 퍼포먼스가 하나 되어 그리는 우리의 자화상!’

자신을 찾아가는 그림그리기 여행! 회화, 영상, 시, 라이브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가 하나로 통합된 비주얼 씨어터! 흰 빈 벽 위에 화가의 숨겨진 자화상이 그려진다. 몸 위에 칠해지는 사회적, 개인적, 역사적 상처와 꿈들. 모든 그림은 마지막 흐르는 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고 빈 벽만 남는다.



## 시놉시스

‘이것은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린 우리의 자화상이다!’

거대한 흰 벽이 우물물처럼 출렁인다. 우물을 들여다보던 공연자는 거대한 흰 벽을 캔버스로 삼아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다. 그림 그리기 행위는 거대한 운명과 싸우듯, 벽에 대항해 그리고 뚫고 지우고 부딪히고 하는 모양을 한다.

그림을 그리던 그가 자신의 그림 속에 빠져 갇힌다. 그에게 군복과 사회적 유니폼들이 입혀진다. 자신의 거대 손과 물감들이 그를 상처 입히고, 그의 사회적·개인적 상처들을 끄집어낸다. 마침내 그는 독한 사랑의 상처가 흘러나올 때 무릎을 꿇는다.

그는 자기 눈에 붓창을 찔러 물감눈물을 흐르게 한다. 이 거대얼굴이 흰 벽에 영상으로 투사되고, 그는 그 위에 머리카락이 미친 듯 자라나는 거대한 광기의 벽화를 그린다. 한 순간 그 위로 물이 흘러내리고, 모든 욕망의 그림은 한 순간의 꿈처럼 지워져 흰 벽만 남는다. 우물물이 출렁인다.

## 대표공연경력

2011 피라타레가 축제 공식초청작(스페인)

2010 과천한마당축제 특별초청작 /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식초청작

씨어터제로 공동기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성 및 다양성증진 지원 선정작

2009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 /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 다원예술분야 선정작

모틀레 거리극축제 공식 초청작(프랑스)

샬롱 거리극축제 공식 참가작(프랑스)

## 공연리뷰



2009. 7. 25.

프랑스 샬롱 축제 신문

## 페인팅 퍼포먼스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제작\_비주얼씨어터 꽃(CCOT) / 창작, 연출, 출연\_이철성 / 음악\_이정훈 /  
설치\_하소정 / 조연출\_한윤미

## 작품소개

이 작품은 구의취수장 내 담벼락을 공연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장소특정적 공연(Site Specific Performance)으로 탄생하였다. 서울시를 흐르는 한강의 물을 식수로 만들어내는 구의취수장은 문을 닫고 폐산업시설이 될 예정이다. 이 공간의 반입구에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담벼락은, 다량의 묵직한 크기의 돌들과 세멘으로 버무려진 힘이 넘치는 조형예술품일 뿐 아니라, 오랜 시간 태양, 바람, 비에 치대어온 온갖 흔적의 기록이다. 본 공연은 작가가 담벼락에서 보았던 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다.





### 시놉시스

공연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는, 술에 취한 자가 담벼락을 상대로 오바이트를 하고 오줌을 지리는 그 짧은 순간에 벌어지는 환영에 대한 이야기이다. 담벼락에 뿜어진 토사물들이 벽화로 화려하게 태어나고, 그 환영의 그림 속으로 술 취한 자가 빠져든다. 그러나 토사물 위로 지리는 오줌의 흘러내림과 함께 환영은 지워진다.

퇴근 후 만취한 중년남자와 도심 골목의 담벼락이 맞장 떠 한바탕 환상과 환멸을 만들어 내는 이 공연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간'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꿈이 사라지고 난 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환상의 한 중간에서 그는 왜 담벼락을 짚고 쓰러졌을까.

### 대표공연경력

2013년 서울시 구의취수장 오픈 스튜디오 선정공연





## 설치퍼포먼스 <종이인간>

제작\_비주얼씨어터 꽃(CCOT) / 창작, 연출\_이철성 / 출연\_이철성, 관객들 / 음악,  
연주\_이정훈 / 설치\_하소정 / 조연출\_한윤미

### 작품소개

관객과 함께 만드는 ‘힐링’ 설치퍼포먼스!  
소멸하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예술테라피 공연!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당신... 당신을 안아주는 시간!”

관객의 몸을 통해 새로운 “종이인간”을 탄생시키고 다시 소멸시킴으로서 삶의 소중한 화두를 기억하게 하는 힐링퍼포먼스(healing Performance) <종이인간>이 관객을 만난다.

<종이인간>은 인간 실존의 불안함과 연약함을 부서지고 소멸되기 쉬운 ‘종이’라는 재료를 통해 드러낸다. 관객의 몸 전체, 또는 일부에 종이를 덮고 마사지해 떠난 종이인형들은 공연 중 살아 움직이고, 인형은 자기의 원형인 관객을 이끌어내어 함께 행위를 한다. 인간의 욕망과 절망, 부서지기 쉬운 물질성이 드러나고, 종이인간들은 바람, 물, 불 등에 의해 그 소멸을 맞이한다. 공연예술의 경계와 벽을 허무는 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은,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게 하여, 극의 이입을 통해 내적인 사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출가이자 <종이인간>의 공연자 이철성은 이 극을 이끌어가는 마사지사로 등장하여 종이인간이 살아나 움직이게 하는 조력자로서, 그리고 종이인간의 원형인 실제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안내자로서의 행위를 맡는다.

### 대표공연경력

2013 과천축제 공식초청작

경기문화재단 별별예술프로젝트 지원선정작!

(과천시 온온사 장소특정적 공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공식초청작

(2012 NArT 유망예술육성지원-신진예술가지원 선정)

청계천 광고갤러리 야외공연

한국공연예술센터 기획공연(다원예술분야) 선정작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연)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선정작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 조각그림자극 <그림자로부터>

제작\_비주얼씨어터 꽃(CCOT)  / 창작, 연출, 출연\_이철성

### 작품소개

‘그림자가 된 남자!’

-조각과 손전등과 거대한 스크린이 그려내는 조각그림자극’

사내가 빛을 던지자 조각들은 그의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그림자극과는 달리 조작자와 빛과 인형 모두가 천 앞으로 나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그림자극. '현실-내면-기억-현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때론 그로테스크하고 과장된 그림자를 통해, 때론 아름답고 진실된 그림자를 통해 전개된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어!” 그림자가 된 사내의 잊혀졌던 사랑 이야기. 고통받는 인간이 사랑을 통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가를 다룬 작품.

### 시놉시스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던 사내는, 우연히 조각 전시회를 방문한다. 조각들의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기억(내면)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그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삶을 다시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다.

### 대표공연경력

2008 경기문화재단 무대공연제작지원 다원예술부분 선정작

아르코예술극장 2008 Arko Challenge 기획공연 선정작

2006 수원화성연극제 공식 초청작

2005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 선정작

2004 과천한마당 축제 공식 초청작



## 미디어 퍼포먼스 <종이창문>

제작\_체험예술공간 꽃밭(CCOTBBAT) / 창작, 연출\_이철성 / 출연\_이철성, 심은정(화가) / 미술디자인\_심은정 / 음악음향디자인\_신수경 / 음악감독\_한윤미

### 작품소개

2009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인기작품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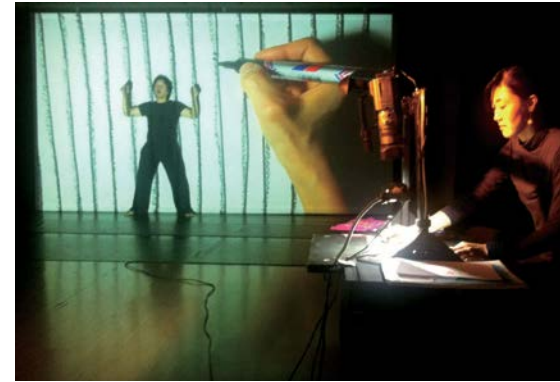
2012 세계인형극총회(중국) '탁월한시각연출상' 수상작

‘그림 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 특별한 위트, 유쾌한 상상력과 만나라!’

국내외 유수의 페스티벌과 극장 공식초청공연에 빛나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의 새로운 체험! 새하얀 벽,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조용한 공간에 거대한 환상의 스케치북이 펼쳐진다. 화가가 즉석에서 그려내는 그림이 새하얀 벽에 커다란 영상으로 펼쳐지고, 그 환상의 스케치북 속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



께 뛰어들어 여행을 떠난다. 이 환상여행은 관객에게 시종일관 웃음을 선사하며 위트에 감탄하게 만든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연극과 회화, 무대와 관객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통합되는 신선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미디어공연예술을 직접 뛰어들어 체험하는 드물고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 시놉시스

<종이창문>은 독립된 세 개의 장('점', '선', '이상한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가가 찍은 간단한 점 하나가 모기가 되어 배우를 괴롭히고, 그려진 선 하나가 무대전체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그림 속 여행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나기도 하지만, 악몽 같은 화가의 거대한 손을 만나기도 한다.

장들 사이엔 '간식시간'이라는 짧은 막간극이 있는데, 고구마, 바나나와 같은 일상의 음식이 굵은 허벅다리나 낙하산으로 변하며 마술적 장면을 연출한다. 공연의 후반부는 관객들이 직접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 그림과 반응하며 라이브 작품을 만들어간다.

### 대표공연경력

2012 세계인형극총회(중국) '탁월한시각연출상' 수상

2011-2012 서울대학교,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초청공연

2009-2012 아시테지 여름축제, 과천한마당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공식초청작

2009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인기작품상' 수상

2008-2012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 터키, 인도, 루마니아 국제공연예술축제 공식초청

## 미디어상상놀이극 <거인의 책상>

제작\_체험예술공간 꽃밭 (CCOTBBAT) / 창작, 연출\_이철성 / 출연\_이철성,  
심은정(화가) / 미술디자인\_심은정 / 음악음향디자인\_이정훈 / 음악감독\_한윤미

### 작품소개

2012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연기상', 관객이 뽑은 '최고인기상' 수상작!

'집채만큼 커진 일상의 사물들이 펼치는 환상의 드라마,  
그 특별한 위트, 유쾌한 상상력을 만나자!'

<거인의 책상>은 미디어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조그만 일상의 책상을 거대한 거인의 책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책상 위의 손들과 그림 그리는 행위, 일상의 사물들이 거대하게 확대되고, 그 거인의 책상 위로 배우와 관객이 뛰어 올라 황당한 환상의 체험을 한다. 공연관람과 함께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공연을 통해 상상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우리는 거인의 책상 위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환상의 여행을 떠난다.

### 시놉시스

작품은 3개의 독립된 장과 마지막에 관객이 직접 거인의 책상 위로 올라가 좌충우돌 체험을 펼치는 '관객 체험공연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거인의 책상- 거인의 책상에 올라선 사람이 거인의 손과 거인이 그리는 그림들과 한바탕 환상의 놀이에 빠진다. 2장. 불-모닥불을 피운다. 불은 떠올라 하늘의 별들이 되고, 땅의 꽃이 된다. 땅 위에 꽃들이 가득하다. 이 모든 것은 운명(신)과 같은 거인의 손에 의해 펼쳐진다. 3장. 아빠의 책 -거인의 책상 위에 갇힌 사람의 모습을 통해, 거대사회에 묶여 고통 받는 아빠의 현실과 꿈을 그린다.



### 대표공연경력

2014 대만 카오슝 아동예술교육축제 공식초청작

2013 일본 오사카 국제아동예술제 'Tact Fest' 공식초청작

하이서울페스티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

국립현대미술관, 대림미술관, 성남미디어센터 공식초청

2012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연기상' 관객이 뽑은 '최고인기상' 수상작  
과천한마당축제, 아시테지 여름축제, 아시테지 겨울축제, 인천주안미디어  
문화축제 공식초청



대표작 발췌: 시

\* 총 10편의 시 중, 첫 시 '너와 나'는 시집 <식탁 위의 얼굴들>에 수록된 시이고, 나머지 9편의 시들은 시집 <비파 소년이 사라진 거리>에 수록된 시들이다.

## 너와 나

여기 이 벤치에 앉아  
겨울 냄새를 맡고 있는 너와 나는  
순간 스친 이 냄새에  
말을 잃고 깊이 뉘어져만 가는 너와 나는  
너의 손을 잡지 못하는 나와  
내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오는 너는  
바람처럼 스산하고  
공기처럼 맑아  
떨어지며 정지하여  
영원히 정지해버린 너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기억처럼 참담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를 바라고  
네가 나의 어머니이기를 바라는 너는  
여기 추운 나무들이 서 있는 벤치에 앉아  
희망한다.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의 친구가 되지 말기를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애인이 되지 말기를  
그래서 맑은 하늘과 비어 있는 거리  
멈춰선 버스와 흘러가는 시간 사이로  
너의 두 눈은 그림처럼 아름다와  
겨울 냄새를 풍기고  
겨울의 하늘 속으로 멀어져  
내가 빠져든 우물,  
겨울이 된다.

## 검은 새

화장火葬의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사원의 침탑  
그 위를 느릿느릿 나는 저 새는  
아침이 정오가 되어도 날아가지 않고  
하루의 태양이 서산에 걸려도 날아가지 않다가  
큰 빗장문을 열고 사원을 나오는  
한 여인의 뒤를 따라간다.  
검은 새  
검은 여인을 따라간다.  
밤이 내리는 사원의 뜰을 지나  
곧게 뻗은 숲 속의 길을 따라  
너른 들판과 얇은 언덕들을 넘어  
어두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마을을 지나  
강변에 선 여인

검은 새

검은 여인 속으로 들어가다

검은 여인

운다.

-인도, 바라나시



## 一片의 夢

새벽에 잠이 깨  
 바다엘 나갔다.  
 두꺼운 어둠 속을 따라온 개  
 한 쪽 다릴 저는,  
 내가 앉은 야자나무 밑으로 기어들어온,  
 몸쓸 병으로 온 몸에 진물을 흘리고 있는  
 그.  
 나와 눈이 마주치자  
 붉은 머리털, 눈,  
 눈 깊이 번쩍이던  
 욕정의 어둠!  
 목마른 아침의 태양이 바다 위로 혀를 내밀 때  
 미친 듯 내 머릴 건너뛰어  
 침대 속으로 사라져버린  
 붉은 머리털  
 그  
 꿈 한 조각.

-이집트, 시나이

## 흰 소와 마주치다

자전거를 타고 북적대는 대로와 한 모퉁이를 돌다가, 크고 흰 한 마리의 소와 마주쳤다. 난 순간 균형을 잃고 엉거주춤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소는 막 내 옆을 지나치며 그 큰 눈망울을 돌려 날 이곳이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하도 크고 위엄이 있어, 하마터면 무릎을 꿇고는 그 앞에 머릴 조아릴 뻔했다. 소는 마치 무슨 중대한 예언을 말하는 자의 엄격함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거리는 장사치들과 그들의 물건과 그곳에 몰려든 뜨내기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들이 내지르는 고향과 욕설과 웃음과 능청이 거리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나는 소의 등에 믿기지 않게 튀어 오른 큰 흙이 움직이는 걸 보았다. 소는 그 몸체 만한 큰 두 뿔을 들어 무언가 말할 자세였다. 그의 온몸에서 돌출한 뼈들은 그가 무언가 절실함의 절정에 이르고 말았다는 걸 증명이나 하듯 심하게 꿈틀댔다. 그러나 그 순간 날카로운 채찍이 그의 등짝을 갈랐고, 소는 헉, 하며 고개를 꺾는 것이었다. 한참 후 그는 길게 늘어진 혀를 힘겹게 추스리더니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가 끄는 마차엔 수많은 곡물더미와 농기구와 가구들, 그리고 가난한 한 가족이 타고 있었다. 갓난아기는 더위에 지쳐 울고 있었고, 눈먼 노인은 마차가 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를 오랫동안,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이다.

-인도, 아그라

## 비파 소년이 사라진 거리

거리의 비파 악사 소년과  
 북을 치는 어린 여동생  
 소년의 신들린 노래와 연주는  
 거리를 한순간 평정했다.  
 사람들은 입을 달아걸고  
 거리는 숨겨진 귀를 열고  
 지긋한 할머니의 다리가 행려병자처럼 춤추고  
 주머니의 돈들이 춤추며  
 악사의 가방으로 들어갔다.  
 노래는 끝이 없고  
 눈 감은 소년의 연주는 끝이 없고  
 가슴의 귀를 열어버린 사람들은  
 성급히 돈가방을 닫고 사라지는  
 소년의 날선 눈초리를 보지 못했는가.  
 음악이 사라진 거리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빈 봉지처럼 서 있다.

- 중국, 카슈가르

## 달, 깨지는 얼굴

나뭇잎 사이의 달  
 하늘 전체의 얼음  
 개가 베어 먹은  
 내 잠 위에 뜬  
 미소 짓는  
 벗겨진 얼굴  
 누구나  
 저항할 수 없는 마지막에서 만나는  
 외로운 흑성  
 깨지는 얼굴  
 달

- 이집트, 서부사막

## 시의 향기

때는 밝은 아침  
 새들이 푸른 하늘서 내려올 때  
 나무 그늘에 앉아 시를 쓴다.  
  
 시는 그림을 닮아  
 낮은 집들과  
 아름다운 문양의 창틀과  
 붉은 기와들을 그린다.  
  
 시는 음악을 닮아  
 마당을 뛰어가는 아이의 짧은 고향과  
 그 붉은 불과  
 너른 들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떨어지는 사과와 시큼한 순간을  
 적는다.  
  
 시는 중심에서 피어나는 향내처럼  
 모든 것들 속에서 피어나고  
 너른 하늘에 가득하고  
 내 얼굴과 코끝을 쓰다듬는다.  
  
 시는 가난한 연필이 훑고 지나간  
 작은 일기장 위에 있다.  
 일기장을 덮으면  
 시는 마개로 닫힌 과일향이 된다.  
 시는 내일 아침 아내가 몰래 열어보기 전까지  
 배낭 깊은 곳에 놓여진 때 묻은 작은 일기장이다.  
  
 -그리스, 메테오라

## 소리 소문 없이 그것은 왔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것은 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다.  
 깊은 곳에 웅크린 외로움  
 외로움이 독을 마신다.  
 그리고 의식을 잃는다.  
 가난한 흰 들판에 푹, 푹, 저녁 핏물이 든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자  
 사람들은 사랑이 떠나갔다고 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것은 왔다 갔다.  
 황폐한 들판에 뿌리 채 뽑혀진 사과나무.  
 사랑은 태풍처럼 왔다가  
 농약처럼 사랑하다가  
 파헤쳐진 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은 떠나갔다.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얼굴에 고운 화장을 하고 있다.



## 황금 물고기

중이염이 오래다.  
 오늘은 두꺼운 이불 두 개를 꺼 덮고서  
 끄끙대다.  
 몸살과 감기  
 아내는 요즈음 마음의 병을 얻었나  
 분주한 끝에 가만 조각처럼 앉아 있어 가보면  
 눈물이다.  
 오늘  
 무거운 몸 둘이 줄 맞춰 누워  
 인생과  
 삶의 헛됨과  
 그 연약함을 논하다.  
 다섯 살 딸아이는 장난감 골프채를 휘둘러대며  
 침대와 방바닥을 뛰어다니다.  
 겁에 질린 우리의 몸뚱이를 가차 없이 밟고 지나가는  
 빛나는 괴성  
 연약한 삶을 짓밟고 튀어 오르는  
 황금 물고기야.

## 딸아이의 시계

길고 긴 밤  
 짙고 검은 밤  
 잠결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의 머리 방향이 바뀌어 있다.  
 밤새  
 모두 눈 감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머리는 방향을 바꾼다.  
 시곗바늘처럼  
 검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돛단배처럼  
 별들의 우주를 헤엄치는 우주선의 방향타처럼.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주의 시계에 자신의 시계를 맞추기 위한  
 그 끊임없는 노력을 안쓰러워하며  
 생각해 본다.  
 생명이 우주를 듣는 소리  
 갈매기가 육지를 맡는 냄새  
 눈 먼 수캐가 헛대에 올라 바라보는  
 우주의 시계.  
 길고 긴 밤  
 짙고 검은 밤  
 아이의 젖은 이마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는  
 검은 바다  
 그 속에 떠 있는 작고 빛나는 물병  
 우주의 시간.

대표작 발췌: 산문

## 바다와 달

내가 왜 이곳에 이르렀는지는 모른다. 눈을 떠보니 바다다. 검은 새벽 나무껍질로 엮어 만든 헛(오두막)의 창문 밖에서 바다가 오르렁대고 있다. 일어나 헛 밖으로 나간다. 모래다. 모래가 시원하게 발바닥을 핏고 발가락들 사이를 핏는다. 간지럽다. 검은 하늘에도 모래다. 가득 뿌려놓은 별 모래. 땅에는 검은 물이 파도 치며 땅의 모래를 핏고, 하늘에는 검은 하늘의 물이 별 모래를 핏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 물과 이 물이 낮에나 밤에나 같은 색깔 같은 질감이고나. 실제 히브리어로 '자마임'은 '하늘'을 뜻하는데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자(저기에 있는)+마임(물)'이란 뜻이다.

검은 바다에 한발 한발 다가설 때마다 무서움을 한 움큼씩 삼킨다. 어둡기도 하거니와 그 소리가 대단하고 그 광활함이 먹먹하다. 난 큰물이 삼켜버리는 한 알의 모래와 다름없다. 그 물에 다다르지 못하고 가까이 앉아 생각한다. 난 어제 오후에 이곳 남 고아의 아곤다 해변에 도착했다. 오토바이를 한 대 빌려 사람 없는 해변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을 발견했다. 몇 채의 헛과 몇 개의 레스토랑, 해변엔 인적이 드물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은 바다와 물 두 가지뿐이다. 내가 왜 이곳에 이르렀는지는 모른다. 특별히 이곳일 필요는 없다. 단지 이삼일 전부터 이곳 바다 연안을 계속 배회하고 있다. 바다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저 하늘에선 여인의 부풀어 오른 배처럼 볼록한 달이 바다를 잡아당기고 있다. 바다가 부풀어 오르며 흥분한다. 부풀어 오른 바다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삼사일 내륙의 오지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다의 냄새를 향해, 바다의 처열석 처열석 하는 거친 숨소리들을 향해 달려왔다. 마침내 바다 가까이에서 바다가 나타나기도 전에 바다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냄새가 아니었다. 그 처열석하는 숨소리도 아니었다.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흥분한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일까.

그리고 보니 새벽잠을 깨워 나를 이 어둠의 물로 잡아끈 것은 달과 바다이구

나. 아니 바다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볼록하게 흥분시키고, 밀고 당기며 흔들고, 검은 물 위에 자기의 흰 빛들을 뿌리며 희롱하고 애무하는 달과, 그 달의 기운에 흥분하여 자꾸 출렁이고, 괜히 물에 자기 살을 비비고 비벼대고, 처열석 처열석 하는 거친 숨소리들을 뿜어대고, 흰 물보라와 거품들과 바닷게들을 내뿜고, 내 발과 몸통까지 먹어치우려고 안달을 하는 바다의 검은 입, 그 욕정이구나.

난 이 부풀어 오른 대자연 앞에서 더욱 생각에 잠긴다. 달은 지구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 온종일, 사시사철, 아니 영원토록 물 위에 자신의 흰 빛을 뿌리며 밀고 당긴다. 바다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물을 핏으며 밀고 당긴다. 태초에 달의 흰 정자들을 받아 삼킨 이 검은 바다 속에서 생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생명은 바다가 물을 비비고 또 비벼대는 이 뜨거운 경계에서 물의 생명에서 물의 생명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람이 되었다.

난 왜 이곳에 도착했는지 모른다. 긴 생각에서 깨어난다. 바다가 나도 모르게 내 위로 올라 타 몸을 비비고 있다. 바지와 옷을 벗는다. 속옷은 진작부터 헛에 두고 나왔다. 바다는 이 순간 하나의 동물이다. 거칠게 숨을 뿜어내다가도 얇전히 뒷걸음질 친다. 동물의 혀가 모래를 핏고 나를 핏는다. 난 모래에 뒹굴고 혀 위에서 뒹군다. 동물이 날 꿀꺽 삼키면 난 까마득하게 흩어진다. 나의 정신은 검은 물속에서 까마득하게 흩어진다. 시원(始原)의 생명들이 몰려오는 소리들 들린다. 검은 물 깊은 곳에서.



## 숨결

인도의 첸나이에서 반수리(인도의 전통 피리악기) 연주자 스리 사메르 라오를 만났다. 첸나이의 칼라슈트라 예술대학의 캠퍼스에서였다. 한국의 연극팀과 인도의 배우, 연주자들이 협업을 하는 현장을 방문하던 차였다. 캠퍼스는 도시 외곽 한적한 숲 속에 있었다. 나는 한 달간 인도 남부를 여행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작은 홀에서 연습이 진행되었고 난 한쪽 구석 마룻바닥에 몸을 누이고는 눈을 감고 있었다. 저음의 피리소리가 날 들어올렸다. 소리는 마치 미풍과 같았다. 햇살이 찬란한 오전이었다. 소리는 몸과 뺨을 간질이는 숨결이었다. 난 그 숨결에 들어올려져 홀을 나와 숲을 거닐었다. 이미 신발을 벗어버린 채였다. 맨살이 부드럽고 따뜻한 흙들을 그리잡았다 놓으면서 걸었다. 숲의 빛과 그늘이 교대로 몸을 간질였다. 첸나이의 2월은 온화한 태양과 나무와 식물과 꽃들과 미세한 공중의 생명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부드러운 미풍에 출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신의 숨결인 듯 모든 것이 그 은총을 받아 출렁이고 있었다.

반수리의 연주자 라오는 그 후 한 달이 지나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참여하는 공연을 보러 서울엘 나갔었는데, 공연의 팸플렛 그의 사진 옆에서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11살 어린 나이에 반수리를 통해 숨 쉬는 삶을 선택하다...’ 아, 이 말을 읽자 첸나이의 숲이 확 다가왔다. 나로 하여금 맨발로 숲을 거닐고 자연의 미풍과 신의 숨결을 체험하게 한 그곳. 그 시작점에 반수리의 연주가 있었다. 그가 반수리를 통해 진정한 숨을 시작한 것처럼, 그의 숨결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날 진정 숨 쉬게 하고, 난 그 숨에 생기를 얻어 일어나 걷고 춤추고, 나의 열린 숨 안으로 자연과 신의 숨결이 들어오고, 그래서 숨결과 숨결이 서로를 호흡하여 연주자 라오와 반수리와 나와 자연 우리 모두가 하나의 협주를 이루었나 보다. 음악은 위대하다. 음악가는 위대하다. 라오는 결국 내 몸을 연주했다. 내 몸은 라오를 위해 나뻐지 않은 악기였다.

‘숨’이란 무엇이나. ‘숨 쉰다’는 것은 무엇이나. 성경의 창세신화는 신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한다. 신

의 숨결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사람은 생명과 영혼을 얻었다. 그래서 숨은 신성하다. 신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인간의 숨결을 통해 신성을 느낄 수 있다. 어린 아이의 달콤함 숨결, 청년의 뜨거운 숨결, 슬피 우는 아줌마의 처절한 숨결, 노인의 땀새나는 숨결, 그것들은 숨결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를 흔든다. 숨이 빠져나간 몸, 그 몸을 보면 알 수 있다. 숨이 머무는 몸이 얼마나 기적 같고 신비로운지. 새근거리며 잠자는 어린 아이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 보면 모든 삶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숨이다. 숨이 없는 몸은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돌덩이와 다를 것이 없다. 흙덩이와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들 우글거리는 오물과 다르지 않다. 비로소 숨이 들어와 온몸이 맑게 되고 생기 나고 일어서게 된다. 몸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는다. 과일을 따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냇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마신다. 세상은 신의 숨결로 가득하고 열매들로 가득하다. 몸은 한가로이 앉아 흥얼거린다. 신의 숨결이 몸을 연주하는 소리다.

진정으로 숨 쉬는 법을 늦게 배웠다. 까마득한 어린 시절엔 몰랐다. 좀 더 커서 숨 쉬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어린 시절엔 나무에 올라서 숨 쉬었고, 뒷산 둥근 무덤들에 올라 숨 쉬었다. 아비의 품에서 어미의 품에서 동네 아줌마나 누이 처녀의 품에서 숨 쉬었고 동네 형들의 등에 업혀 숨 쉬다 잠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누구네 집인지도 몰랐다. 따뜻한 날엔 따뜻하게 숨 쉬었고, 장맛비에 팔팔팔 빗물처럼 숨 쉬었고, 냇물에선 발가벗고 물속에서도 숨 쉬었고, 겨울엔 땀 눈을 먹고 객객대며 눈물 흘리면서도 숨 쉬었다. 땅의 흙을 두 손으로 잡고 뿌리고 던지며 놀 때도 뿌연 흙먼지 속에서 잘도 숨 쉬었다. 좀 더 크면서 숨 쉬는 것이 잘 안 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이십대의 중후반 직장생활, 삼십대 초반까지... 이십대 초반 갑자기 터져 나온 시(詩)들을 통해 가끔 뭉쳤던 숨을 쉬었다. 몇 번의 연애 동안 간혹 온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숨을 쉬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숨 막힌 시간이었다. 군대와 직장생활은 숨을 앓아가 버렸다. 숨을 쉬지 못하는 몸이 항문에서 얼굴까지 반란을 일으켰다. 자꾸 화가 나고 폭력적이 되었다. 논쟁을 하던 친했던 대학 선배형을 마구 팬 적도 있었다.

형은 놀라서 쳐다만 보았다. 미안한 일이다. 착한 형...

숨은 나를 떠나 다른 곳에 있었다. 저 나무 위에, 저 달과 함께, 저 산과 숲 속에. 그것들과 같이 숨 쉴 수 없었다. 그 방법을 몰랐다. 무언가 나에게 다시 숨을 넣어줄, 그래서 막혔던 숨의 통로들이 열리고 그래서 비로소 저 다른 숨결들과 호흡을 나눌, 그러한 숨결이 필요했다.

어떻게 몸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 어느 때부터 자연과 신의 숨결을 받아 마시고 나의 숨결을 내 보낼 수 있게 되었는지 잘은 모른다. 사실 무엇이, 어느 순간부터인지가 중요할 텐데, 미세한 4월의 미풍을 즐기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대략을 추측할 뿐이다. 시를 쓰면서 시가 자연의 숨을 받아마시게 도와주었다. 사람 속에 숨은 숨들을 읽는 법을 알게 해 주었다. 시를 잘 안 읽는 이 시대에 독자의 숨들이 내게 전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주업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온갖 공간에서 온갖 관객들을 만났다. 갓난애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굴다리 아래에서 대극장 무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터져 나오는 숨들을 어느 때는 받아 마시기가 버거웠다. 공연을 마치면 몸이 빨강게 익어 있었다. 나의 숨과 수백 명의 숨들이 뜨겁게 서로를 받아 마시는 기류 속에서 빨강게 익어버린 것이다. 이젠 숨이 우리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한다! 공연자인 퍼포머는 공연이 진행되면서 점점 익어가고 그 맛있는 요리를 관객 모두가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인간을 통해 숨을 쉬게 되었다. 누구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십대 중반 마음에 병이 들어 세상을 등지고 은둔했는데 오랫동안 안 보이던 어머니가 옆에 계셨다는 기억이 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 숨 막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 가끔 막힌 숨을 터뜨렸다. 어느 때는 둘 다 숨이 터지지 않아 막힌 가슴을 부여잡고 안 나오는 소리로 꺾꺾 울었다. 몇 년이 지나고 결혼 후 또 몇 년이 지나 근 십 년이 지나서야 서로 숨을 주고받는 법을 알게 되었다. 어린 아이를 통해 숨을 쉬게 되었다. 그것은 아주 쉬웠다. 두 번이나 태어나는 아이를 받으며 느꼈다. 온몸으로 터지는 울음, 그것이 바로 숨의 첫 모습이다. 그것에 처음엔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두 번째는 정말 하하 웃었다. 나의 숨도 같이 터져 웃었다. 어린 아이는 몸 전체가 숨이다. 깨어서는 양양 울거나 씩씩거리고 잘 때는 소리도 크게 색색거린다. 가슴에 귀를 대고 있으면 그 빠르고 시끄럽고 힘찬 심장의 방

망이질 소리에 정신이 없다. 그것은 숨소리를 넘어서 '숨 외침'이다. 나는 온통 숨이다, 나는 살아 있다, 나의 숨이 나의 말이다! 라고 외치는 숨 외침이다. 숨소리를 잘 들어야 아이의 상태나 병을 알 수 있다. 아이를 안고 아이의 숨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배운다. 숨 쉬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운다. 자연이 숨 쉬기 시작하고 초목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냇물과 강물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자주 하나 보다. '아, 이 나무가 안녕하고 인사하네. 아, 여기 돌멩이가 화가 났나봐. 못생겼다 그치? 야, 저기 좀 봐라. 고양이야 널 계속 쳐다보네. 오늘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오늘은 하늘이 왜 저러냐. 비가 오려나. 오줌 싸려나 보네. 너 오줌 언제 넣더라. 오줌 마렵지? 그치?...'

예루살렘에 살 때 처음으로 숨을 주제로 시를 썼다. 그때는 숨 쉬는 법을 알려고 무던히 애쓰던 때였다. 결혼 초기였고 유학시절이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예루살렘은 온통 전쟁통이었다. 자연 또한 녹록치 않았다. 숨 막히는 태양 숨 막히는 안과 밖의 싸움...

#### 예루살렘, 2002년, 4월

태초에 신은 입김을 불어  
사람의 숨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어떤 신성을 느낀다.  
늙은 어머니의 입 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아프고 몽클한 것은 그 때문.  
자는 아내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째깍대는 시계소리가 더 커지는 것도  
그 숨 때문.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술에 취해 휘청대며  
속 깊은 말들을 토해낼 때

내 손끝이 찌릿해져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싶은 것도  
그 거친 숨소리 때문.

여기 거리에 쓰러진 한 소녀

가쁜 숨을 몰아쉬다 천천히 식어간다.

그 숨이 떠나버린 차가운 나무덩이.

한 무리의 구조요원과 경찰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거리

너에게서 신은 입김을 거두어 가셨구나.

- 2002년, 4월 들어 이틀에 한 번씩 자살테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테러범 중에는 18세의 팔레스타인 소녀도 끼어 있었다. 오늘 그녀는  
대형슈퍼마켓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려 3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자살하였다.

## 신발을 버리다

여행에서 돌아왔다. 신발을 벗었다. 안팎으로 먼지 가득하다. 한 달을 거쳐 간 땅  
의 흙들을 고스란히 일정량씩 채집하여 신발의 미세한 틈틈마다 컬렉션한 듯하다.

신발을 버렸다. 그냥 문 밖에 두고 들어왔다. 그리고, 영원히, 안녕...

무언가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듯... (그러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 듯...). 도마뱀  
의 꼬리? 토사구팽(兔死狗烹)?

거의 냉마가 된 신발은 버릴 만하다. 그래서 버렸다. 그러나 아직 문 밖에 있다.  
그대로 있다.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뿐. 그러나 그것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나?  
아내가 문 밖에서 묻는다. 버릴 예정이냐고, 길에 가져다 버리고 오냐고. 아! 아  
무 말 하지 않았다.

여행 내내 신발을 벗고 신는다. 숙소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 구석에 잘 모서  
놓는다. 모셔놓는다는 것은 문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 도난을 염려해서다. 오만  
가지 절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방 안 구석에 두는 것은 더러워서다. 매  
일 수 킬로를 걸으며 갇은 더러운 것들을 밟았을 신발. 모셔두기보단 병원균처럼  
보기 일쑤다. 아침이 되면 다시 그걸 신고 길을 나선다. 더러운 줄 알지만 맨발로  
땅을 밟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래도 이 신발이 한 달간 내 발 밑에서 수 천 킬  
로를 다니며, 낫선 오지의 땅과 직접 몸을 섞으며, 그 흙의 양분과 오물과 그 땅  
에 쌓여 있는 케케묵은 시간의 퇴적들을 죄다 혀로 핥으며, 온 몸으로 여행하였  
다. 진정한 여행자는 신발이요, 난 그 뒤에 숨어 풍경을 유람하는 귀족일 뿐!

그런 신발을 버렸다. 아니, 아직 문밖에 있다. 아내가 또 묻는다. 버리라는 거  
야 두라는 거야! 난 말한다. 버려! 버리라고! 버릴려고 문 밖에 뒀잖아! 버려! 내  
말 들려?

여행은 끝났다. 새까매진 얼굴, 수염을 밀고, 도시의 옷을 입고, 가족으로 된  
새 신발을 꺼내 신고 일하러 나간다. 서울로. 문 밖에 둔 신발은 이젠 없다. 새 신  
발. 발이 두텁게 느껴진다. 땅 전체에 두꺼운 가죽이 깔린 듯, 둔탁하고 두꺼거  
린다. 그리고 보니 흙이 없다. 죄다 세멘 아스팔트. 멈춰 선다. 괜히 버렸다. 빨



면 한 반년은 더 쓸 텐데. 마치 내 피부가죽처럼 부드러웠는데. 내 꿈지락이는 발가락들처럼 유연했는데. 내 예민한 후각과 미각처럼 내 모든 감각을 그에게 맡겼었는데. 그리고 보니 더 생각나는 것은, 밤새 다른 도시로 가는 야간버스에서 발 밑에 구겨진 채 이리저리 흔들리다, 아침 퉁퉁 부은 두발을 다시 감싸주며 새 길, 새 땅을 걷게 해 주지 않았나. 원래는 푸른 하늘색으로, 눈처럼 하얀 끈이 엑스자로 가지런히 매어져 있고, 알파벳 N자가 크게 박혀있던 운동화. 먼지 케케로 묻어 점차 땅의 색깔로 변해갔지.

그걸 버렸다.

Korean Writers Lee Cheolsung

copyright © 2014 by Arts Council Korea

Designed by Seoul Selection